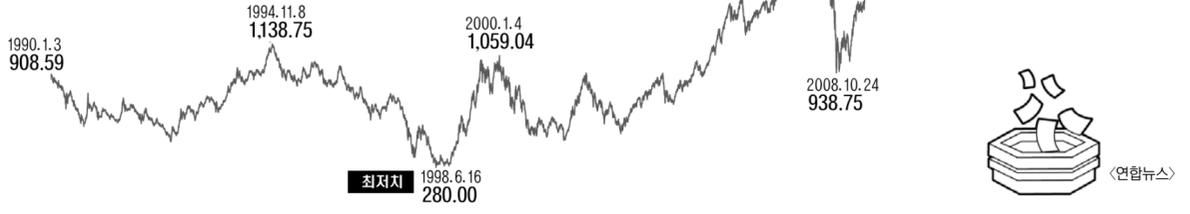


코스피 2241 사상 최고치...향후 전망

전 세계 경기 회복...3분기 2350 '기대'

대선 후 정책 기대감...대북리스크 등 경색 풀려가
반도체·석화·철강·금융↑...부동산 보다 주식 대세
대형주 투자해야 효과...묻지마 투자·추격 매수 위험



코스피가 4일 6년 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증권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지수가 2,3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밀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등이 맞물려 지수 상승을 상당 기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2,300선 도달 시기는 2분기나 3분기로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 위주로 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 정계두 점장은 "그동안 국내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대북리스크, 저배당,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요인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2350선까지 지수가 오르고

연말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고 진단했다. 또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매수가 크게 늘었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오합석 투자전략센터장은 "코스피가 연간 2,300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니 잠시 놀림목이 나오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갈지, 아니면 바로 상승세를 더 이어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됐다.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맞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대세 흐름 장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자의 주의도 필요한 대목이다.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이다"면서 "몇 개 대형주 위주로 장이 돌아가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성장 상승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 저성장하는 시장에서 2000개 종목이 팔고루 올라가기 어렵다.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남의 잔치에 손뼉치는 꼴일 수 있다. 지수가 오르고도 묻지마 투자를 허거나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도 "기업 이익이 워낙 좋다. 미국 경기도 회복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코스피가 연중 2,3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채권의 시대가 끝나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투자자산의 대이동)'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국내 기관도 채권으로 돈을 못 버니까 위험자산을 사는 상황이다. 대세의 시작이다. 기초여건, 기업 이익, 경기 회복, 물가 상승 등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다"고 내다봤다.

또 "경기 회복 초기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주가 오르고 금융주가 오른다. 또 하나는 1등 기업이 오른다.

구조조정을 경험한 업종에선 경기 회복기에 1등 기업으로 돌린다. 주도 기업의 실적도 긍정적이다"면서 "코스피 2,350선 도달 시기는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도 저금리 상황이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긍정적이다. 부동산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올해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센터장도 "전 세계 경기 회복이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시기에는 회복이 장기화하고 투자자금이 주식으로 몰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는 경기 회복 속에 삼성전자 등 기업실적이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어 분위기가 좋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그런데 코스피가 최근 상승에도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9.5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배에 못 미칠 정도로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41.24 (+21.57)
-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1)
- ↑ 코스닥 635.11 (+8.68)
- ↑ 환율 (USD) 1132.70원 (+2.20)

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이달말까지...39만3000가구 혜택 전년비 6만7000가구 늘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39만3000 가구로 전년 대비 6만7000 가구 증가하였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관내 14개 세무서에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이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장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청장구에서는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관할지역이 넓고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복지 거주 노년층이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남·북 34개 시·군에 소재한 378개 읍·면 사무소에 현지신청장구를 개설했다.

또한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5만2000 가구에 읍·면 현지신청장구 이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고령자가 신청안내문과 계좌번호,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ARS(1544-9944) 전화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신청에 도움을 준다.

김희철 청장은 "앞으로도 수급요건에 해당 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더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창업·프랜차이즈 꿀정보 얻을 기회

내달 23~25일 광주 DJ센터서 박람회...참가업체 모집

(사)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와 (주)아론은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제7회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는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와 창업관련 업체, 유망 사업아이템 관계기관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70여개 업체가 140여개 부스를 차릴 예정이며 호남 최대 규모의 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로 소자본 창업자에게 관심이 뜨겁다.

참여나 관람을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사무국(홈페이지 www.fitex.kr) 또는 전화 062-226-0908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챌린지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무대에 올라 뮤지컬 갈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아 챌린지 콘서트 어린이 단원들이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립아시아전당에서 열린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무대에 올라 뮤지컬 갈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금호산업 필리핀 프린세스공항 확장공사 준공

금호산업은 지난 3일 필리핀 현지에서 푸에르토 프린세스공항 확장공사를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리핀 섬의 푸에르토 프린세스 시시에 연간 여객 20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을 신축하고 기존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억 달러 정도이며 한국 수출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됐다. 공사 기간은 33개월이 소요됐다.

금호산업은 현재 작년 11월에 수주한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며, 흑산공항 기본설계도 수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스카넷
Step 3. 외벽외트랙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채워진 컬러그래프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페넨디자인러 잔 엔지니어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상명대학교/영남대학교/경북대학교/대구대학교/태백시보건소
한성대학교/경북대학교/안동대학교/부산대학교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